

개벽사와 차상찬

— 기획 특집과 매체 지형의 변화를 중심으로

鄭賢淑*

I. 서론

III. 결론

II. 개벽사 잡지의 기획물과 매체 지형의 변화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차상찬을 중심으로 개벽사 잡지의 기획물이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다양한 특집은 사회문제를 공론화하고 여론을 형성하면서 식민지 저널리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차상찬은 개벽사의 편집자이자 발행인으로서 이를 주도하였다. 『개벽』의 ‘조선 문화의 기본조사’는 식민지 조선의 실상을 밝히고, 문화운동의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기반이 되었다. 『별건곤』은 대중잡지의 정체성 안에서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특집을 기획하였고, 특히 르포, 좌담회, 인터뷰 등 다양한 기술방식을 수용함으로써 독자와의 소통을 확장시켰다. 『해성』은 시사적인 기획물을 통해 정론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냈으며, 『제일선』은 문학, 문화와 관련한 주제로 특집을 기획하였다. 『개벽』 속간호는 신문사 특집을 통해 1920년대 개벽사가 지녔던 언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개벽사, 차상찬, 기획 특집, 『개벽』, 『별건곤』, 『해성』, 『제일선』, 속간
『개벽』

*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

I. 서론

일제 강점기 개벽사가 지닌 위상은 독보적이다. 개벽사는 『開闢』(1920.6)에 이어서 『婦人』(1922.6), 『어린이』(1923.3), 『新女性』(1923.9), 『別乾坤』(1926.11), 『學生』(1929.3), 『彗星』(1931.3), 『第一線』(1932.5), 『新經濟』(1932.5),¹⁾ 『開闢』新刊號(1934.11) 등 무려 9종의 잡지를 창간, 속간하였다. 이 잡지들은 정치, 사상, 문화, 문학 등 다방면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개벽』은 근대 매체의 역사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개벽』을 비롯하여, 『별건곤』, 『신여성』, 『어린이』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정작 개벽사 잡지 발간을 주도한 편집진에 대한 논의는 그리 활발하지 않다. 편집자들은 단순히 글을 엮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정신과 지성을 기획하고 이를 가공하여 시장에 내보내는 일련의 창조적인 작업을 주도하는 실체이다. ‘사상가로서의 편집자’라는 개념에서 보듯이 그들은 집필자에게 수동적으로 협력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언어화해 줄 수 있는 집필자를 찾아내어 그들을 통해 발언하는 주체들이기도 하다.²⁾ 주로 천도교청년회(청년당)의 인사들로 구성된 개벽사 편집진들은 일제의 검열과 열악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매체 전략을 세우고, 크고 작은 기획 특집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공론화하고, 여론을 형성하면서 식민지 저널리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갔다. 이들은 단순한 미디어 집단이 아니라 3.1운동 이후 문화운동을 선도하고 민족운동의 중심 세력이 되고자 하였던 변혁 주체들이었다.

이 글은 주요 편집진 중 한 명인 차상찬(車相瓚, 1888~1946)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는 『개벽』 창간에 참여하고, 『별건곤』, 『혜성』, 『신여성』, 『제일선』, 『신경제』, 『개벽』 신간호 등 각종 잡지를 창간하고 속간하는 작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³⁾ 그는 정경부주임, 편집 겸 발행인, 대표로서⁴⁾ 개벽사가 문을 열 때부터 닫을

1) 현재까지 『신경제』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신여성』 1932년 5월호 광고를 보면 ‘경제지식 보급을 목표로 1932년 5월 20일에 창간한 大衆經濟運動新雜誌이며, 크기는 ‘新聞半切型八頁’이고, 정가는 二錢이며, 二十萬部를 발행하여 개벽사 四大雜誌讀者와 일반인에게 무료로 배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후카이 토모야키 저, 홍이표 역, 『사상가로서의 편집자』, 도서출판 한울, 2015, 32~46면.

3) 차상찬이 편집 겸 발행인으로 발행한 잡지는 『별건곤』 14호(1928.7)~74호(1934.8), 『혜성』 1호(1931.3)~13호(1932.4), 『신여성』 39호(1931.9)~71호(1934.6), 『제일선』 1호(1932.5)~10호(1933.3),

때까지 꾸준히 잡지를 발간한 일제강점기 잡지계의 전설이며,⁵⁾ 사실상 개벽사의 잡지 발간이 가장 활성화하던 시기에 편집과 발행을 책임졌던 인물이다.⁶⁾ 차상찬은 식민지 시기 매체, 특히 개벽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인물이지만, 그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연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천도교와 개벽사 활동과 관련한 논의이고,⁷⁾ 다른 하나는 문화 또는 문학과 관련한 세부적인 관점이다.⁸⁾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잡지 언론인으로서 위상이 규명되고, 문화 기획자로서의 역할과 조선 문화에 대한 인식이 의미 있게 평가되고, 문학적 성과도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논의 대상이 제한적이고, 개벽사와 관련한 역할도 충분히 해명되지 않고 있다.

이 글의 논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개벽사 편집진들이 직면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떤 기획 특집을 추진하였으며, 그것은 매체 지형에 어떤 변화 양상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편집자이자 기획자로서 차상찬의 역할과 위상을 조명하는 것이다. 기획물에 주목하는 이유는 특집에는 개벽사의 지향과 편집진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논의 대상은 차상찬이 편집과 발행에 참여했던 『개벽』, 『별건곤』, 『해성』, 『제일선』, 『개벽』(신간호)이

『신경제』 1호(1932.5)~10호(1933.6), 『개벽』(신간호) 1호(1934.11)~4호(1935.3) 등 120호에 이른다.

4) 천도교 자료에 의하면 차상찬은 1926년 이후부터 개벽사 대표를 맡은 것으로 보인다. 「교회월보사 사무실 문제로 포덕과와 서무과 대표가 종리사 측 대표와 회합하여 토의한 결과 개벽사(대표 차상찬) 사무실을 전부 반환하도록 합의하다.” 〈포덕과 일지〉 1927.5.24.; “중앙종리원 서무과에서 개벽사 책임자 차상찬에게 기념관의 파손된 문과 창, 의자 등의 수리를 독촉하여 수리하다.”(1928.2.14.) 〈서무과 일지〉

5) 최덕교 편, 『한국잡지백년』 2, 현암사, 2005, 24면.

6) 정용서, 「1930년대 개벽사 발간 잡지의 편집자들」, 『역사와 실학』 57, 역사실학회, 2015a, 228면.

7) 이러한 논의는 정진석, 「개벽사의 ‘문화적 민족주의’와 차상찬」, 『청오 차상찬 서거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집』 한림대 국제회의실, 2016.5.20.; 정용서, 「개벽사와 차상찬」 앞의 2016 발표집b.; 성주현, 「청오 차상찬과 천도교」 김태웅 외 『차상찬연구』,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20; 박길수, 「청오 차상찬의 개벽사 활동과 천도교」, 앞의 2020 책 등이 있다.

8) 이러한 논의는 김태웅 외, 앞의 2020 책에 수록된 심경호, 「차상찬의 민족문화 발굴 공적」a; 김태웅, 「차상찬의 지방사정 조사와 조선문화 인식」; 송민호, 「식민지 조선의 문화기획자 차상찬」; 오현숙, 「차상찬의 아동문학」; 유명희, 「차상찬의 민요수집과 유형 연구」과 정다연, 「〈별건곤〉 소재 차상찬 역사 서술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9; 유정월, 「『어린이』 소재 차상찬 역사동화연구-자료와 서술방식을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11, 한국리터러시학회, 2020 등이 있다.

다.⁹⁾ 지금까지 개벽사 잡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개별 잡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논의도 주로 문예란에 주목하고 있다.¹⁰⁾ 그러나 개벽사 잡지들은 연계되어 있다는 점, 또한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문학사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잡지들은 종합 잡지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별 잡지의 정체성 안에 개벽사의 지향이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II. 개벽사 잡지의 기획물과 매체 지형의 변화

1. 『개벽』의 ‘조선 문화의 기본 조사’와 민족담론

개벽사는 『개벽』 창간 2년 후인 1922년 무렵부터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맞는다. 우선 그간 추진해온 신문화운동의 목표가 추상적이었던 평가가 나오면서 앞으로는 조직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¹¹⁾ 이에 개벽사는 독자층을 계층화하는 다종매체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여성 계층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별도의 잡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통 상식을 보급하여 생활을 개선하자’는 목적으로 여성 잡지 『부인』(1922.6)을 창간하였다.¹²⁾ 또한 총독부가 9월 12일자로 『개벽』의 기사 변경을 인가하여, 창간 이후 종교, 학술, 문화에 한정되어 있던 기사 내용을 정치, 경제에 관한 일반 시사 등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내 조직을 개편하여, 편집국을 조사부, 정경부, 사회부, 학예부로 재편하고, 각 부에 주임을 두기로 하였다. 그리고 社友制를 실시하여 독자와의 연대감을 높이고, 지사와 분사를 확충하는 등 유통망도 새롭게 구축하였다.¹³⁾

9) 차상찬은 『신여성』의 편집 겸 발행인도 맡았지만, 기획 특집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 대상에 넣지 않는다.

10) 강용훈, 「1930년대 개벽사 발간 잡지의 문예담론과 식민지 조선의 매체 지형」, 『비교문화연구』 제 51,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2018, 291~327면.

11) 「文化運動의 淸々」, 『개벽』 제21호, 1922.3, 2~3면.

12) 『부인』은 1923년 9월부터 『신여성』으로 개제하였다.

13) 「開闢社 社友制의 設行에 關한 趣意와 規定」, 『개벽』 제29호, 1922.11, 114~115면.

차상찬이 개벽사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 시기이다. 정경부는 정치, 경제 기사 확대와 관련 있는 조치로 보이는데, 정경부 주임으로 부임한 인물이 차상찬이다.¹⁴⁾ 그는 천도교청년회의의 주요 인사로서 개벽사 설립과 『개벽』 창간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창간호에 실린 한시 「慶州懷古」와 「南漢山城」이 전문 삭제 당한 이후, 「秋日往牛耳洞拜孫義菴先生墓」(『개벽』 제29호, 1922.11)¹⁵⁾를 발표할 때까지 『개벽』에서 그의 글은 찾아 볼 수 없다.¹⁶⁾ (그러나 차상찬은 一記者나 無記名으로 발표한 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필명을 사용하였고, 아직까지 그의 필명이 다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는 수정될 수 있다.¹⁷⁾)

개벽사는 1923년 신년호(제 31호)에 최초의 대형 기획 특집인 ‘朝鮮文化의 基本調査, 各道道號 刊行’(이하 ‘기본조사’)을 공표하면서 변화를 가시화하였다. ‘기본조사’는 구체적인 실행이 결여되었던 문화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조선부락조사’, ‘朝鮮舊慣調査’ 등 일제가 벌인 각종 조사사업에 대항하기 위한 개벽사의 대응책이기도 하였다.¹⁸⁾ 이 기획은 ‘朝鮮의 今日情形’ 즉 ‘조선의 살림살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한 달에 한 도를 답사하고, 답사한 것을 翌月號의 『개벽』에 부록으로 공개’¹⁹⁾

14) 정용서, 앞의 발표문 b, 73면.

15) 차상찬과 『개벽』의 인쇄인 민영순과 함께 손병희 묘소를 참배하고 한시를 발표하였다. 민영순의 한시는 「追和 車靑吾秋日往牛耳洞拜孫義菴先生墓詩」이다.

16) 1921년 7월 1일 발간된 『보성교우회보』 제1호의 ‘보성교우회원록’을 보면 당시 차상찬의 직업은 조선일보 기자이다. 조선일보 입사와 퇴사 일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당시 조선일보에 재직하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보성교우회보』 제1호(1921.7), 17면. 조선일보는 친일경제단체인 대정실업친목회를 배경으로 1920년 3월 5일 창간되었지만, 필봉은 날카로웠다. 조선일보는 5개월 동안 30여 차례나 기사 압수 사건을 겪었고, 1920년 8월 27일 민간지 최초의 1주일 정간처분을 당하였다. 정간이 풀리자 다시 총독부 처사를 비난하는 논설을 실어 또 무기정간 처분을 받았으며, 1월 5일 정간에서 풀려났지만 경영난으로 12월 24일까지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였다. 이듬해 속간하면서 「골수에 맺힌 조선인의 한」이라는 10회 연속 기사를 실으면서 총독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차상찬이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한 것은 정간과 발간, 무기정간 등을 거듭하던 시기이다. 박찬승,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3- 언론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89~90면.

17) 지금까지 확인된 필명은 靑吾, 觀相者, 尖口生, 松雀, 壽春山人, 翠雲生 등 71종이다. 정현숙, 「차상찬 필명 연구」 김태웅 외, 앞의 2020 책, 289~332면.

18) 김태웅 외, 앞의 2020 책, 159면; 심경호, 「차상찬의 인문지리지 및 세태보고서 작성」 『『개벽』 창간 100주년 기념 2020 차상찬학술대회』, 2020.11.6b, 24면.

19) 「朝鮮文化의 基本調査, 各道道號 刊行」, 『개벽』 제30호, 1923.1.

한다는 계획이다. 개벽사 역점사업이었던 만큼 ‘기본조사’에는 편집국장 김기전, 사회부 주임 박달성, 정경부 주임 차상찬, 조사부 주임 이재현 등 개벽사의 편집진들이 대거 참여하였는데, 이 중 차상찬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그는 13도 답사 중에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를 제외한 11도를 답사하였다. 이 중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5도는 차상찬 혼자 답사하였고, 경상남도와 평안남도는 김기전, 경상북도는 이재현, 경기도는 개벽사 기자들, 함경남도는 박달성과 이재현, 황해도는 박달성과 함께 동행 답사하였다.²⁰⁾ 이 기획은 1년에 마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1923년 2월부터 1925년 11월까지, 2년 9개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그는 『개벽』 34호(1923.4)의 ‘경남도호’부터 64호(1925.12)의 ‘전라북도답사기’까지 답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기본조사’는 향후 개벽사가 추진할 ‘개벽적 대사업’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기획 의도는 첫 번째 답사보고서인 ‘경남도호’를 발표하면서 조사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하겠지만, 그 중 일부를 잘 보존하여 ‘금후 조선의 개벽적 대사업’²¹⁾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데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차상찬의 답사보고서는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과 각종 통계 자료를 근거로 일상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식민 정책의 실상을 세세히 파악하여 전달하고 있다. 계몽담론과 논평이 아니라 현장 취재의 결과와 객관적인 통계 수치를 사실 그대로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 조사’는 실사적 정신의 확산에 의해 계몽이 해체되는 과정을 잘 드러낸다. 이 조사는 기존의 계몽 주체들이 선각적 훈육적 지위를 포기하고 당대 조선의 현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부터 민족의 나아갈 바를 밝히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²²⁾ ‘기본조사’는 특히 각 지역의 3.1운동 당시 참여 실태, 청년 운동과 소작 쟁의 현황 등 지역사회운동을 상세히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 결과보고서에서 차상찬은 답사 중에 가장

20) 평안북도는 박달성, 한중전, 조기간, 이성삼이 함께, 함경북도는 박달성이 답사하였다. 박달성과 이재현(이을)은 4회, 김기전은 2회, 조기간, 이성삼, 한중전 등이 1회 답사에 참여하였다. 정현숙, 「차상찬의 이동과 연대의 시간-『개벽』의 ‘조선문화의 기본조사’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24, 구보학회, 2020, 153면.

21) “今回の調査は調査한 그것을 일반에게 공개해야 형제 각자가 그 어들 바를 엿게하는씨 외에 우리 자신이 그것의 일부분을 ‘默契藏存’함에 의해야씨 금후 조선의 개벽적 대사업에 資하자는 그것이 업지 아니합니다. 딸하서 本號에 발표된 慶南의 기사도 發布한 동시에 發布치 아니한 것은 發布치 아니한 그것이 잇습니다” 『四月號를 넘은 이에게』, 『개벽』 34호, 1923.4.

22) 이경돈, 「『별건곤』과 근대 취미독물」, 『대동문화연구』 4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4, 257면.

끔찍한 것은 ‘甲午革命亂에 東學軍이 많은 죽은 이야기와 己未運動에 天道教人이 많이 죽은 이야기’²³⁾라고 끝을 맺고 있다. 3.1운동으로부터 기원한 『개벽』의 신문화 운동을 통시적으로는 동학과의 연속성 속에서, 공시적으로는 지역사회운동과의 연계성 속에서 동력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차상찬의 답사보고서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각 지역의 역사와 인물, 유적과 특산물, 전설과 민담, 민요와 동요 등 민족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층적 요소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 문화 담론은 ‘기본조사’를 공표하면서 개벽사가 표방한 ‘범인간적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범인간적 민족주의는 완고한 민족주의를 배척하고 전 세계의 민족을 동일한 인류라고 하는 평등적 조건 하에서 각 민족이 각기 자연한 상태 하에 공동평등의 행복을 누리자’²⁴⁾는 것이다. 따라서 범인간적 민족주의는 정치적 독립의 직접 달성 보다는 문화적·도덕적 차원에서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일차적인 관심을 두고, ‘문화적 민족주의’의 기본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민족과 국가가 분리된 특수한 상황인 식민지하에서 문화적 민족주의(cultural nationalism)는 문화적 접근을 통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²⁵⁾

‘기본조사’의 민족주의 담론은 사회주의 담론과 함께 연재됨으로써 개벽사의 또 다른 지향을 드러냈다. ‘기본조사’가 시작된 1923년부터 『개벽』에 사회주의 경향의 글이 비중 있게 실리기 시작하였고, 이듬해에는 사회주의 이론이 본격적으로 소개되면서 사회주의 담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같은 시기 ‘기본조사’의 민족 담론도 지속적으로 발표되었으며, 때론 첨예한 사회문제를 다룬 기획 기사와 함께 발표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황해도호’는 「治安維持法 實施와 今後の 朝鮮社會運動」(제60호, 1925.6)과 함께 발표되었다. 이 기획은 치안유지법과 관련하여 사회주의 단체와 신문사 대표 12명에게 사회운동과 민족운동의 방향에 대해 설문한 것으로 답변자들은 민족협동전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고, 이러한 담론 생성과 확산은 신간회 창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²⁶⁾ 차상찬은 황해도 답사보고서인²⁷⁾ ‘황해도

23) 「十三道の 踏査를 맞치고서」, 『개벽』 제64호, 1925.12, 114면.

24) 「凡人間の 民族主義」 『개벽』 제31호, 1923.1, 8면.

25) 허수, 「1920년대 『개벽』의 정치사상- ‘범인간적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1(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326면.

26) 최수일, 「신간회 결성에 끼친 『개벽』의 영향」, 『개벽의 백년 백년의 개벽 발표집』, 『개벽』 창간백

호’에서 농업, 임업, 광업, 수산업, 상업, 금융업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일제의 침탈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可驚할 日本人 勢力’의 현실을 사실 그대로 조사하여 독자들에게 알리겠다는 의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형이집 가튼 朝鮮을 어든 日本 사람들은 쥘먹고 알먹는 格으로 政治의 勢力을 차지하고 또 經濟의 勢力까지 차지하여 併合後 不過幾年에 벌서 朝鮮人 利權의 大部分을 侵蝕하였다 特히 黃海道는 幸인지 不幸인지 土地가 膏沃하고 物産이 豊富한 까닭에 北部 朝鮮에 있어서 다른 地方보다도 더욱 그 蹂躪을 當하였다. 元來 破巢の下에 完卵이 업슬 것은 누구나 다 짐작할 것이지만은 實地로 그 現況을 보면 스스로 애차러운 생각이 소사나고 놀라운 가슴이 뛰지안이치 못한다 나는 새삼스러이 여러 가지의 말을 하지 안코 다만 그들의 勢力 如何를 調査하여 一般 讀者에 供할뿐이다²⁸⁾

이어서 차상찬은 ‘爲先 日本人의 農業 經營者로 말하면 三十 町步 以上을 所有한 者만도 左와갓다’, ‘其次에 一千 町步 以上の 林業 經營者를 舉하면 또 이리하다’, ‘鑛山은 또한 엇더한가 (鑛山은 西洋人까지도 包含)’, ‘尙又 道內의 日本人 漁業況을 調하면 左表와 갓다’면서 각종 통계표를 제시하고 있다.²⁹⁾ 이 표는 황해도 전 지역에 서 일본인과 일본기업이 소유한 농지, 임야, 광산, 어장의 현황을 소재지, 소유 면적, 경영자, 경영방법, 창립일 등으로 항목화하여 상세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此外에

주년 기념 공동기획 학술대회, 2020.10.5., 70~71면.

27) 황해도 답사는 1925년 3월 16일부터 5월 초까지 차상찬과 박달성이 함께 다녀왔다. 차상찬이 먼저 답사를 시작하였으나 도중에 상을 당하여 귀가하고, 박달성이 답사를 마쳤다. 답사보고서 본문은 ‘車相瓚 朴達成 並記’로 되어 있으나, 목차에는 필자를 나누어서 명기하고 있다. ‘黃海道の 總觀’(車相瓚), ‘可驚할 黃海道の 日本人 勢力’(車相瓚), ‘黃海道の 三大 자랑과 二大 羞恥’(一瞥生), ‘黃海道에서 어든 雜同散異’(春坡), ‘郡守를 歷訪하고 郡守諸君에게’(朴達成), 各方面으로 본 黃海道 十七郡 中 ‘延白郡은 黃海道 穀倉’, ‘海州는 第二開城’, ‘瓮津郡은 海西의 處女地’, ‘長淵郡은 黃海道 樂地’, ‘松禾는 去皮 三十里’, ‘殷栗은 棉花 자랑’은 車相瓚, ‘載寧은 基督教 天下’, ‘信川은 溫泉世界’, ‘安岳은 農民의 福地’, ‘黃州는 林檎國’, ‘鳳山은 黃海道 中心’, ‘瑞興은 鎗器자랑’, ‘遂安은 金으로 名天下’, ‘谷山은 谷山’, ‘新溪는 別無特色’, ‘平山은 黃海道 班鄕’, ‘金川은 大豆자랑’은 朴達成 이다.

28) 차상찬, 「황해도호」, 『개벽』 제60호, 1926.6, 82면.

29) 차상찬, 앞의 1926 글, 82~85면. 지면 관계상 통계표 인용은 생략함.

農林業、商業、精米業、鑛業、銀行業、運輸、倉庫 等を 經營하는 會社가 本店을 合하여 十餘 個所에 達하나 또한 日本人의 經營이니 就中 三菱製鐵株式會社 兼 二浦製鐵所는 資本 二千五百萬圓으로 熔鑛爐³⁰⁾二基를 有하고”³¹⁾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를 통하여 차상찬은 침략상의 구체적인 규모를 사회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요컨대 ‘황해도호’는 「治安維持法 實施와 今後の 朝鮮社會運動」과 연동되어 민족협동전선론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현실적 필요성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벽』의 주체들은 한편으로는 ‘기본조사’를 통해 식민지 실상을 확인하고 개벽적 대사업의 기반을 축적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당면한 민족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또한 ‘기본조사’에서 차상찬의 구비문학에 대한 관심은 ‘김삿갓 선생시문대모집’(『개벽』 제 67호.1926.3-제71호.1926.7)등 민족문학 발굴 기획으로 이어졌다.³²⁾ 그러나 1926년 8월 72호로 『개벽』이 폐간당하면서 이러한 확장은 중단되고 만다.

2. 『별건곤』의 탐사보도와 대중담론

『별건곤』은 『개벽』이 폐간되고 3개월이 지난 1926년 11월에 창간되었다. 개벽사는 창간호의 「餘言」을 통해 『별건곤』은 일 년 전 부터 준비해온 ‘취미와 과학’ 잡지이며, 무책임한 讀物이나 방탕한 오락물, 비열한 정서를 조장하는 취미를 박멸하기 위해 시작하였고, 『개벽』의 후신으로는 별개의 언론 잡지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³³⁾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개벽사의 다종매체 전략과 『개벽』이 지녔던 위상을 회복하고,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제2호는 ‘실익과 취미’³⁴⁾ 잡지로 정체성을 다시 규정하였다. 당시 취미는 현실에 대한 위안과 지배 체제에의

30) ‘熔鑛爐’은 ‘熔鑛爐’의 오식. ‘熔鑛爐’는 용광로(鎔鑛爐). 차상찬전집편집위원회 편, 『차상찬전집』 2권, 금강 P&B, 2018, 306면.

31) 차상찬, 앞의 1926 글, 86면.

32) 차상찬은 1936년 2월 〈중외일보〉에 「불우시인열전」과 「불우시인 김삿갓」을 발표하면서 ‘이 분의 시는 내가 모은 것도 약 300수가량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개벽사에서 수집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경호, 앞의 2020 글a, 125면.

33) 「餘言」, 『별건곤』 1(1), 1926.11, 153면.

34) 「編輯室放送」, 『별건곤』 1(2), 1926.12, 154면.

일치라는 근대 제국의 이데올로기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지만,³⁵⁾ 『별건곤』의 창간 취지는 제국의 책략에 포섭되지 않겠다는 의지로부터 출발하였다.

차상찬은 『별건곤』 제14호(1928.7)부터 편집 겸 발행인을 맡았다. 하지만 편집후기를 보면 그동안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이 시기에 비로소 나서게 된 것을 알 수 있다.³⁶⁾ 실제로 그는 松雀, 探報軍, 翠雲生, 考古生 등 『개벽』에서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필명으로 『별건곤』 제1호(1926.11)부터 12.13호(1928.5)까지 매호 빠지지 않고, 한 호에 적게는 2편에서 많게는 10편에 이르기까지 총 60여 편의 글을 발표하였다.³⁷⁾ 『별건곤』은 ‘취미’를 내세웠지만, 지향은 그동안 개벽사가 표방해온 ‘조선 문화의 발전’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편집진은 기존의 지향을 이어가면서, 이를 ‘취미와 실익’의 대중 讀物로 변모시키는 다양한 기획들을 수행하였다. 한편으로는 조선 문화의 발전과 전파라는 명분을 이어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인들이 잡지의 읽을거리를 통해 추구하는 새로운 감각을 동시에 담지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자리에 차상찬이 존재한다.³⁸⁾

『별건곤』은 매 호마다 현실을 직시하는 신선하고 획기적인 기획물을 선보였으며, 여러 차례 편집체제를 바꾸면서 비판적인 공론장 조직과 여론을 조성해 갔다.³⁹⁾ ‘지하국탐방기’(제5권, 1927.3-제6권, 1927.4), ‘드면록(錄)’(제7호, 1927.7), ‘조선은 어디로가나’(제34호, 1930.11), ‘대경성 에로.그로.추(醜)로 총출(總出)’(제42호, 1931.8) 등 역사에서 현실에 이르는 폭넓은 기획 주제를 다루면서, 현재와 과거,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며 흥미롭게 구성하는 돋보이는 기획력을 보였다. 특히 창간호부터 ‘순례기’, ‘암행기’, ‘탐사기’ 등 ‘기본조사’의 현장 취재 방식을 이어가는 탐사보도를 기획 연재하였다.⁴⁰⁾ 이 기획 특집에는 개벽사 기자들이 총출동하였다. 이들은

35) 이경돈, 「취미라는 사적 취향과 문화주체 대중」, 『대동문화연구』 5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7, 250~251면.

36) “숨어서 잘 다니는 車兄이 발행인에까지 일흠을 내걸고 나섰스니 날카로운 솜씨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 잇슬 것을 기다려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부터 편집 책임을 더 지고 李乙氏 대신 발행 책임까지 져스나 ……” 「社告 編輯 後記」, 『별건곤』 제14호, 1928.7, 178면.

37) 차상찬이 『별건곤』에 발표한 글은 270편이다.

38) 송민호, 앞의 2020 글, 200~201면.

39) 이선경, 「『별건곤』의 편집체제연구-공론장과 여론 구성 전략을 중심으로」, 『동양학』 77, 2019,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35면.

40) 「自由結婚式場巡禮記」(제1호, 1926.11), 「禮拜堂巡禮記」(제2호, 1926.12), 「記者總出動: 大京城

결혼식장, 재판소, 인사상담소, 하숙집, 종로거리, 경찰서, 카페, 땅꾼 거주지 등 경성의 다양한 공간과 계층을 밀착 취재하여 급격한 도시화와 세태의 변화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사행심 넘치는 종로거리, 일본인에게 학대받다가 해고된 여인,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상경한 어린 소년, 전통적으로 엄격한 사회조직과 제도가 있었지만 ‘배암 장사도 이속에 눈이 밝은 日本 사람들이 대자본으로 도매 散賣를 하는 까닭에 여간 하여서는 잘 팔어 먹을 수가 업다’⁴¹⁾ 땅꾼의 처지 등 식민지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부당한 일상을 세밀하게 조명하고 있다. ‘기본조사’가 사진기로 조선의 현실을 사실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면, 이 탐사보도는 현미경으로 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면서 낱알이 전달하는 형국이다. 또한 이러한 탐사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세세히 전달하는 1인칭 구어체 화법을 통해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훈육의 권위적인 발화자가 아니라 호기심 넘치는 친절관찰자가 내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술방식은 독자를 계몽의 대상이 아닌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는 동반자로 존재하게 한다. 독자를 담론의 객체가 아니라 공동 주체로 초대함으로써 사회문제를 공유하고 대중적 공감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별건곤』은 『개벽』의 특집을 반복하는 기획도 있지만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별건곤』(제12.13 합병호, 1928.5)의 ‘조선의 자랑’은 『개벽』(제61호, 1925.7)의 ‘조선의 자랑’, 『별건곤』(제23호, 1929.9)의 ‘대경성 특집’은 『개벽』(제48호, 1924.6)의 ‘경성호’의 연장선에 있다. 『개벽』의 ‘조선의 자랑’은 민족성, 역사, 민족의식, 윤리도덕 등의 측면에서 22편을 싣고 있는 반면, 『별건곤』은 학술, 미술, 음악, 문자, 전설, 산수, 특산물, 요리, 미담 등 자랑의 대상을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영역으로 확대하여 무려 96편을 수록하고 있다. 『개벽』은 주로 권위적인 서술자가 등장하지만, 『별건곤』은 여관 주인, 자동차 운전자, 열차 구두닦이, 상점 점원, 기생, 요릿집 보이 등이 현장 경험을 근거로 조선의 자랑을 입증하는 발화자로 등장하기도 한다.⁴²⁾ 차상찬은

白晝暗行記」(제2호, 1926.12), 「變裝記者暗行探查記」(제3호, 1927.1), 「記者總出動!—一時間探訪:大京城白晝暗行記」(제4호, 1927.2), 「각정이로 變身潛入하야 捕蛇軍 本窟에 一夜間同宿探查記」(제7호, 1927.7), 「記者總出街頭探訪大京城白晝暗行記」(제20호, 1929.4), 「記者總出大京城暗夜探查記」(제24호, 1929.12) 등.

41) 松雀生, 「각정이로 變身潛入하야 捕蛇軍 本窟에 一夜間同宿探查記」, 『별건곤』 제7호, 1927.7, 85면. 松雀生은 차상찬 필명이다.

42) ‘요모조모로 본 조선인 장점’에 ‘동경 여관에서 본 조선학생’, ‘자동차에서본 조선 손님’, ‘기차 중에서

『개벽』의 ‘조선의 자랑’에는 1편을 썼으나, 『별건곤』에는 서로 다른 필명으로 10편의 글을 발표하였다.⁴³⁾ 그 중 「萬國品評會大爭論記」는 가상토론 방식으로 기획 의도를 반영한 글로, ‘지금 형편에 조선에 무슨 자랑거리가 있느냐’는 힐문에 달변가인 관상자⁴⁴⁾가 나서서, 중국, 미국, 영국, 독일, 불란서 등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논거로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면서 조선의 문화적 우수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上下半萬年の 歴史-縱으로 본 朝鮮의 자랑」은 박달성의 「白頭山에서 漢拏山까지-橫으로 본 朝鮮의 美」와 함께 조선의 자랑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글인데, 논점을 세분화하고 역사적 사실을 논거로 조선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있다.

『개벽』의 ‘경성호’는 ‘서울이란 이렇소’라는 소제목 아래 교육계, 문학계, 언론계, 화류계, 미신굴, 빈민층 등 10개 집단의 현황을 보고하고 있는 반면, 『별건곤』은 경성통계, 경성명물, 좋은 곳 나쁜 곳, 경성 맛, 경성해부, 대경성 오대마굴 내막 등의 소주제 아래, 경성의 제반 통계에서부터 다양한 세태를 광범위하고 상세히 관찰, 보고하고 있다.⁴⁵⁾ 이러한 현장 취재는 창간호부터 이어온 탐사 특집의 연장선에서 수행된다. 또한 경성의 역사와 관련한 글이 『개벽』에는 2편이지만, 『별건곤』에는 12편으로 늘었고, 그 중 10편이 차상찬의 글이다.⁴⁶⁾ 그는 백제 시대에서 고려 때까지

본 조선 여객’, ‘상점에서 본 조선 손님’, ‘화류계에서 본 외인과 조선인’, ‘요리점에서 본 조선신사’ 등 6편의 기사가 실려 있다.

43) 『개벽』의 1편은 「天惠가 特多한 朝鮮의 地理」이고, 『별건곤』의 10편은 「一片孤城으로 三十萬唐兵을 擊退한 梁將軍의 安市大捷」, 「東洋天地를 號令하든 朝鮮海軍」, 「大同江上에서 美艦을 燒破하든 崔蘭軒 사건의 顛末」, 「世界絶品 大圓覺師碑와 葵觀婆」, 「朝鮮古樂의 變遷과 歷代樂團의 名人物」, 「國際적으로 알려진 朝鮮人物」, 「無窮花禮讚」, 「萬國品評會大爭論記」, 「世界的 特産物 天下名藥 高麗人蔘」, 「上下半萬年の 歴史-縱으로 본 朝鮮의 자랑」이다. 이 중 「無窮花禮讚」은 전문 삭제되었다.

44) 관상자는 『개벽』에서부터 사용한 차상찬의 대표적인 필명이다.

45) 『개벽』은 외국인 세력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별건곤』의 ‘경성통계’는 인구-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수와 가구수, 결혼, 이혼, 출생, 사망, 교육신문잡지, 교통, 회사, 공장, 직공임금, 위생, 무역, 예금, 대출, 공동변소의 실태와 묘지, 극장, 요리점, 음식점, 예기, 창기, 여관, 하숙, 목욕탕, 이발소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점포 수까지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46) 차상찬이 필명과 무기명으로 발표한 10편은 「國都 以前の 京城-上下一千三百年間の 略史」(翠雲生), 「京城의 五百年史」(車相贊), 「京城이 가진 名所와 古蹟」(考古生), 「京城雜錄: 京城語錄」, 「京城 五大鐘 辯正錄」(靑吾), 「오래된 병어리: 鐘路 인경의 신세타령」(松雀生), 「京城名物集」, 「京城 八大門과 五宮門」(門內漢), 「古蹟由來 大京城 城壁巡禮記」(壽春山人), 「世上에 잘못 나온 記錄들-京城에 關한 諸記錄의 錯誤」이다.

이어온 경성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기술하고,⁴⁷⁾ 景福宮, 昌德宮, 德壽宮, 於義宮, 慶熙宮, 慈壽宮, 仁慶宮, 毓祥宮, 永禧殿, 璿源殿, 長生殿, 大廟, 獨立門, 獨立館紀念碑, 園丘壇, 獎忠壇, 塔洞公園, 社稷, 三角山, 北漢山城, 洗劍亭, 石坡亭, 南山, 北岳山, 漢江鐵橋, 六臣墓, 四忠祠, 關羽廟, 文廟 등 명소와 유적의 유래를 고증하고,⁴⁸⁾ 종로 인경 즉 보신각 종의 역사적 변천사를 서술하고, 京城府의 도시계획에 따라 무단 이전시킨 사실을 지적하는⁴⁹⁾ 등 경성의 정체성 회복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글은 『개벽』의 ‘문화적 민족주의’를 내면화하고 있으며, 식민정책으로 역사와 문화가 훼손된 상황에서 집단기억을 소환하고, 정확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기획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논거 제시를 통해 민족적 자긍심은 주관적인 신념이나 감정 차원이 아니라 객관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민족 국가로서의 정통성도 심정적 당위론이 아니라 논리적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개벽사는 『별건곤』을 창간하는 동시에 곧바로 언론 잡지 발간을 추진하였으나, 4년이 지나도록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잡지 발간이 지연되자 『별건곤』은 제29호(1930.6) 特告를 통해 ‘이번 號부터 本誌에도 特히 政治, 經濟에 關한 問題를 掲載하게되엇’⁵⁰⁾다고 알리고, 정세 관련 기사를 실기 시작하였다. 『별건곤』은 출판지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취미’를 표방한 대중잡지이기 때문에 정치, 시사와 관련된 기사는 다룰 수 없었지만,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일정 부분 실행하고자 나선 것이다. 이러한 개벽사의 의지는 ‘창사 10주년 기념호’인 제30호(1930.7)의 권두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七月은 『開闢』이 十年의 옛날에 비로소 世上을 나아오든 제 돌의 그 달이다. 그러나 반가움은 幻影이다. …… 『開闢』은 沒하였스되 그의 빛나는 精神은 살아잇스며 그의 끼친바 기쁨진 거름은 남아잇다. 後業이 때를 작만하야 그 거름에 그 精神을 培養하랴면 그 일은 뒤가 이어지며 나아가는 步調는 한層 더 闊세여지는 것임을 맛나니 이에 吾人은 沒한 『開闢』을 追憶하는 한便 압날에 펼쳐 壯한 氣운을 힘겨워 미드며 오로지 압길을 걸으려 할 뿐이다. 이 熱熱한

47) 翠雲生, 「國都 以前の 京城-上下一千三百年間の 略史」, 『별건곤』 제23호, 1929.9, 2~5면.

48) 考古生, 「京城이 가진 名所와 古蹟」, 『별건곤』 제23호, 1929.9, 18~29면.

49) 松雀生, 「오래인 병어리: 鐘路 인경의 신세타령」, 『별건곤』 제23호, 1929.9, 76~81면.

50) 「特告」, 『별건곤』 제29호, 1930.6, 13면.

氣勢는 末久에 發行될 新雜誌와 現在의 別乾坤, 學生, 어린이의 四大誌를 中心으로 二十萬 讀者의 絶對 支持 하에 十大新計劃이 着着 進行되는 것으로써 넉넉히 立證하고 남는 바이다⁵¹⁾

이처럼 『별건곤』은 『개벽』의 정신과 기세를 이어가는 잡지임을 역설하고, 제30호는 내외시사논단 특집을 기획하여 조선인의 경제적 위기와 국제 정세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이어서 해외시사논평(제31호, 1930.8), 내외첨단시사(제32호, 1930.9) 등 국내외 시사를 다룬 기획 특집을 맨 앞에 편집하고, 식민지 현실과 국제정세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장해나갔다. 또한 「新幹會解消論贊否批判」(제37호, 1931.2)을 기획하여 16명으로부터 신간회 해소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였다. 맹목적 해소에 반대(송진우, 한용운, 안재홍, 김병로 등)한다는 입장과 실제적 투쟁이 없다면 해소에 찬성(이양, 김현준, 이인, 이인호 등)한다는 현실론, 해소 후 또 다른 협동기관이 필요(여균선)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개벽사 편집진들은 민족운동의 중심 세력이 되고자 하였다. 이들은 신간회 해소를 앞두고 미디어를 통하여 당면한 민족운동의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담론을 생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바로 다음 달에 창간된 『해성』의 기획 특집으로 이어졌다(이에 대해서 후술하겠다).

『해성』 창간되자 『별건곤』은 대중 취미의 5전 잡지의 시대를 열어갔지만, 「世界大勢이야기」(제39호, 1931.10~제50호, 1932.4), 「大衆經濟講座」(제51호, 1932.5), 「勞動講座-企業 勞動과 小作人」(제52호, 1932.6) 등 시사, 경제 관련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였으며, 「新幹會는 엇더케 될까」(제38호(1931.8), 「今後民族的 協同戰線」(제39호, 1931.9), 「新幹會 解消後の 大衆運動은 엇케될가」(제41호, 1931.7) 등 신간회 문제도 연속 기사의 형태로 논의를 이어나갔다. 이러한 글들은 논쟁보다는 독자들에게 정보와 사실을 쉽게 전달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평이한 문체로 기술하고 있다. 그것은 대중에게 보편지식을 전달한다는 것이 개벽사의 지향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별건곤』은 『개벽』의 지향을 이어가면서 다양한 기획을 통해 사회문제를 공론화하고 여론을 형성하였다. 특히 기획물에 따라 르포, 토론, 좌담회, 설문, 인터뷰,

51) 『별건곤』 제30호, 1930.7. 1면.

구어체, 대화체, 논증, 강연, 해설 등 어느 잡지에서도 볼 수 없는 다양한 서술 방식을 수용하고, 한글 문체를 통해 독자와의 소통을 확장하고 대중담론의 장을 열었다. 즉 『별건곤』은 무엇을 전달하느냐와 함께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기획의 초점이 놓여 있었고, 이를 통해 대중잡지의 독자적인 지평을 열어갔다. 차상찬은 편집 겸 발행인으로서 이를 주도하였다. 특히 한글 문체 강조는 『개벽』에서부터 ‘현토식국한문체’식 표현보다 순한글 문체를 강조해온 개벽사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조선어사전편찬위원회 발기인(1929.11), 이후 조선어표준어사정위원회(1934.12)로 이어지는 차상찬의 이력과도 무관하지 않다.

3. 『혜성』의 시사담론과 현실인식

『혜성』은 1931년 3월에 창간되었으며, 차상찬이 편집 겸 발행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개벽사는 『개벽』이 강제 폐간된 직후부터 언론 잡지 발간을 추진하였으나, 총독 부의 허가를 받기까지 5년 가까운 긴 시간이 걸렸다. 『혜성』은 『개벽』의 후신을 자처한 잡지이다. 『혜성』은 창간호 권두언을 통해 세계 속에서 조선의 특수한 현실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선각자의 의식적 노력’을 강조하고, ‘선각적 인테리겐차의 동무’가 되겠다는 창간 취지를 밝혔다.⁵²⁾ 이는 『개벽』 창간호의 「세계를 알라」에서 세계 속에서 조선의 현실과 개조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던 논조와 같은 맥락이다. 차상찬은 ‘彗星餘滴’을 통해 ‘堂堂한 言論의 權威로, 一新한 새사람, 새 社會을 만드는 데에 힘쓰겠다’⁵³⁾는 창간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였다.

창간호는 창간 취지를 반영하여 ‘民族的大協同機關-必要의 有無와 그 可能性如何’와 ‘世界의 苦悶相’이라는 두 개의 특집을 기획하였다. ‘民族的大協同機關’은 전술한 ‘新幹會解消論贊否批判(『별건곤』, 제37호)’의 연장선에서 신간회 해소를 앞두고 민족적대협동기관의 필요와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묻고 있다. 12명의 설문 결과는 ‘同志糾合이 必要’(송진우), ‘切實히 甞긴다’(박야민), ‘組織과 方法問題’(김경재), ‘土臺부터 國제’(박희), ‘協同보다 協議’(어균선), ‘經濟運動이 필요’(이인)등 긍정론이 ‘아직은 不必要’(정운영), ‘協力は 不必要’(이양) 등 부정론과 ‘時期尙遲’(박희도), ‘都是

52) 「卷頭言」, 『혜성』 창간호, 1931.3, 1면.

53) 「彗星餘滴」, 『혜성』 창간호, 1931.3, 156면.

難言’(한용운) 등 신중론보다 약간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획은 ‘新幹會解消와 朝鮮運動의 今後’(제1권 4호, 1931.6)로 이어지는데, 이 특집에서 10명의 논자들은 ‘豫測기 어렵다’(송진우), ‘時機가 일났다’(박희도)는 일부 회의적인 입장도 있지만, 대부분 ‘新形態의 協同戰線’(이원호), ‘民族적 새 團結’(이종린), ‘더욱 힘있는 鬭爭’(어균선), ‘民衆運動의 擴大’(정운영), ‘實踐的大衆運動’(김약천), ‘民族的 새 陣營’(안재홍) 등 새로운 민족운동 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신간회는 1927년 2월 창립되어 3.1운동 이후 국내의 가장 큰 합법적 항일운동단체로 존재했으나, 1931년 5월 해체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개벽』에서 발화한 민족협동전선론은 신간회 결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별건곤』에서도 지속적으로 담론 생성을 이어왔기 때문에, 『해성』의 편집진들도 민족운동의 새로운 향방에 대한 여론을 지속하고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해성』은 신간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후, 논점을 세계정세로 돌려 ‘世界의 苦悶相’과 관련한 기획 특집을 연속하여 게재하였다. 특히 ‘滿蒙特輯大附錄’(제1권 7호, 1931.10) 특집과 「萬寶山 事件의 真相報告」(제1권 5호, 1931.8) 등을 통해 만보산 사건의 진상, 만주사변의 경과, 재만 동포의 현황, 만몽문제의 전망, 만주사변에 대한 국제조약문 등 만주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어서 ‘世界列強國勢調査’(제2권 2호, 1932.2), ‘中國時局問題特輯’(제2권 4호, 1932.4) 등의 기획 특집을 통해 서구 열강들이 처한 경제적, 정치적 위기 상황을 살펴보고, 중국의 분열된 정국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기획은 세계정세 속에서 조선에 대한 현실인식 즉 조선의 객관적 정세 역시 대내외적으로 좋지 않음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⁵⁴⁾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이돈화, 김기전, 박달성, 차상찬 등 개벽사의 주요 필진들은 『해성』의 기획 특집에 필자로 참여하지 않는다. 1931, 1932년은 천도교 신구파의 통합과 분화가 거듭되면서 천도교 청년당과 천도교 청년동맹도 천도교 청우당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가 다시 분화하는 혼란을 겪고, 당 조직을 정비하여 본격적인 정치운동, 사회운동을 전개하면서 주도권을 잡으려던 시기였다.⁵⁵⁾ 당시 천도교 청년당의 핵심 세력이었던 이들은 당의 노선과 활동이 당면한 과제였던 것으로 보인다.⁵⁶⁾ 또한

54) 강용훈, 앞의 2018 글, 308면.

55) 성주현, 앞의 2020 글, 52면; 정용서 「일제하 천도교청년당의 운동노선과 정치사상」 임경석, 차혜영 외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09, 175면.

1931년 가을부터 김기전은 건강 악화로 평남 성천 등에서 요양 중이었고,⁵⁷⁾ 박달성은 천도교 기관지인 『신인간』 발간을 주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보이지 않는 손’의 위치에서 외부 필자들을 통하여 개벽사의 지향을 언어화하고 여론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들은 특집과 관련한 권두언을 통해 기획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滿蒙特輯大附錄’이 실린 권두언은 「北風起兮」라는 제목으로 남만주일대에서 일어난 일본과 중국의 충돌 사건을 언급하면서 조선 동포들의 열악한 환경을 문제 삼고 있으며, ‘中國時局問題特輯’이 실린 권두언은 「東洋平和의 癌」이라는 제목으로 만주사건, 상해사건, 신만주국 건설을 언급하면서, 일본과 중국의 역할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혜성』도 『개벽』 못지않게 창간 초기부터 혹독한 검열을 당하였다. 「혜성여적」(제1권 5호, 1931.6)은 ‘환경의 쓰라린 지배를 바더 정기발행을 못했다⁵⁸⁾고 알리고, 「謝告」(제1권 8호, 1931.11)를 통해 檢閱에 원고 전부가 不許가 되어 直時 不眠不休의 努力으로 再編輯하⁵⁹⁾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1932년 5월부터 『혜성』을 『第一線』(제2권 5호)으로 改題하였다. 권두언을 통해 ‘『彗星』이라는’ 名稱이 漠然하고 현실의 사람과의 가까운 느낌이 적었기 때문에 大衆과 한가지로 第一線에 나서서, 文化의 啓蒙과 向上을 위하여 특히 沈滯된 文藝의 振興을 위하여 全力을 다하려한다’고 改題의 의도와 ‘第一線’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지와는 달리 『제일선』으로 바꾼 호부터 ‘원고 중 중요한 제목이 거의 전부가 게재치 못할 경우를 당하였다.’⁶⁰⁾

이러한 정황을 보면 문화와 문학 영역을 강화하겠다는 『제일선』의 취지는 편집진의 자의적인 의사라기보다는 검열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도는 『제일선』으로 개제한 후에도 『혜성』의 기초를 이어가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일선』은 ‘米日假想戰’(제2권 5호, 1932.5), ‘對立의 焦點’(제2권 6호, 1932.7), ‘농촌레포’(제2권 9호, 1932.10) 등을 통해 세계열강의 각축, 세계 공황, 만주국의

56) 김기전은 당대표와 중앙집행위원, 박달성, 방정환, 차상찬은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天道敎靑年黨小史』 天道敎靑年黨本部, 1935, 71~79면.

57) 『黨聲』 제7호, 1931.11.1., 7면.

58) 「彗星餘滴」, 『혜성』 1(5), 1931.8, 156면.

59) 「謝告」, 『혜성』 1(8), 1931.11, 47면.

60) 「卷頭言」, 『제일선』 2(5), 1932.5, 5면.

동향, 농촌의 몰락 등 국내외 위기 상황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러나 차츰 ‘신진작가초대특집’(제2권 7호, 1932.8) ‘문화전선SOS’(제3권 2호, 1933.2) ‘陽春文藝特輯’(제3권 3호, 1933.3) 등 문학, 문화와 관련한 특집이 지면을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특집을 통하여 기성 문단과 프로문학의 위기를 지적하고, 문화계와 지식인의 절망을 부각시키면서 신진작가를 발굴하여 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문화전선을 재구축하고자 하였으나,⁶¹⁾ 『제일선』은 제3권 3호(1933.3)이후 발간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오는 4월호는 지금 굉장한 프랜을 꾸미고 있다. 이번 4월호야말로 조선 사람이면 누구나 읽지 않고는 못 배길 내용이다’⁶²⁾라는 마지막 호의 ‘후기’를 보면 『제일선』의 폐간은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혜성』과 『제일선』은 『개벽』의 위상을 회복하고, 긴급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민족운동과 문화운동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갑작스런 폐간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4. 『개벽』 속간호의 언론 담론

개벽사는 『제일선』이 폐간된 지 1년 6개월 후, 『개벽』이 강제 폐간된 지 8년이 지난 1934년 11월 『개벽』을 속간하여 신간 제1호를 발간하였다. 편집 겸 발행인은 차상찬이다. 『개벽』 신간 제1호의 「編輯餘墨」는 그동안 「開闢社 본래의 殉敎的 精神이 喪失되고 開闢社의 維持 그것에 급급한 感이 업지 안았다」면서, ‘창사 14주년을 맞이하여 ‘開闢發刊을 결의하고 朝鮮에 가장 충실한 大綜合雜誌 朝鮮이 자랑할 文化的 大雜誌發刊으로의 第一步를 다시 내노케 된 것⁶³⁾라고 속간 취지를 밝히고 있다. 차상찬은 권두언 「回顧 八年」을 통하여 ‘개벽사의 주의와 정신’으로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분투용전하겠다’⁶⁴⁾는 비장한 각오를 천명하였다. 이돈화도 논설 「朝鮮 民族性的의 新建設」을 통하여 『개벽』의 정신을 역설하였다. 그는 조선의 엄정한 현실을 진단하고, ‘개벽’의 이상과 실천적 행위를 다시 강조하고, ‘현실은 불운하지만

61) 강용훈, 앞의 2018 글, 304~311면.

62) 「第一線 後記」, 『제일선』 3(3), 1933.5, 132면.

63) 「編輯餘墨」, 『개벽』 신간 1(1), 1934.11, 99면.

64) 「回顧 八年」 『개벽』 신간 1(1), 1934.11, 1면.

도리혀 완강한 저항과 潑刺한 활기로써 경제력을 충실히 하는 동시에 민족적 신문화를 건설할 것'을 촉구하였다.

『개벽』 신간호가 가장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분야는 언론계이다. 『해성』, 『제일선』도 거의 매호 언론 관련 글을 게재하였으며,⁶⁵⁾ 신간호는 그 연장선에 있다. 신간 제4호(1935.3)는 신문 특집을 기획하고, '신문이 민중의 公器요 사회의 木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民意를 대신하여 新聞紙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⁶⁶⁾ 이 기획은 「朝鮮民間新聞 總評」, 「朝鮮新聞의 大衆的 批判」 「朝鮮新聞의 特殊性和 其 功過」, 「孀嫗孤獨 現 民間新聞-한 文藝家가 본 民間新聞의 罪惡」, 「新聞編輯裏面祕話」, 「新聞에 對한 各界 人士의 不平 希望」, 「朝鮮新聞發達史」 등 11편의 글을 싣고 있는데, 「特別社告」에 '新聞總評, 筆禍事件, 名記者列傳, 社長側面觀, 新聞裏面暴露, 新聞八面鋒는 不得已한 事情으로 掲載치 못함을 筆者와 讀者께 謝합니다.'라는 것을 보면 기획 기사는 총 17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돈화는 「朝鮮新聞의 特殊性和 其 功過」에서 식민지 조선의 언론은 피지배민의 의사를 대변할 책임이 있으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민중을 교화하고 지도하는 역할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다른 필자들도 '大阪, 東京보다 朝鮮인에게 2.3배 더 비싼 광고비를 받는 모순'을 지적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조선 민중을 속이는 악착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당시 신문사들이 일제에 소극적으로 타협하면서, 일상생활과 순수문화, 오락적 기사에 몰두하고, 기자 대량 해고, 증면 경쟁과 사옥 경쟁 등에 돌입하고 있었던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⁶⁷⁾

65) 『해성』의 「新聞戰線 東亞日報 對 朝鮮日報」(창간호, 1931.3), 「朝鮮民間新聞功罪論」 1(5), 1931.8), 「言論, 出版, 集會, 結社, 自由獲得運動의 具體案」(『해성』 1(7), 1931.10), 「東亞, 朝鮮, 每日三新聞 批評記」 1(9), 1931.12, 「東亞, 朝鮮, 中央, 每日朝鮮新聞新年號評」 2(2), 1932.2 등과 『제일선』의 「朝鮮日報는 어디로 가나」 2(6), 1932. 7, 「朝鮮의 新聞들을 도마에 올녀노코」 2(8), 1932. 9, 「新聞屍의幽靈戰」 2(9), 1932.10, 「再現한 中央, 朝鮮兩日報」 2(11), 1932.12, 「各新聞新年號批評」 3(2), 1933.2 등.

66) “이번 號는 特히 『新聞批判號』로 꿈었다. 自稱 民衆의 公器요, 社會의 木鐸이라는 現 新聞은 비록 環境의 不利한 地位에 있다할지라도 너무나 우리들의 期待에 어그러지는 일이 많은 것은 一般이 共通으로 가장 痛歎해 마지않는 바이다. 이때에 우리는 微誠이나마 民意를 대신하여 新聞紙 改善을 切實이 要求促進하고 同時에 一般에게 新聞智識의 普及을 期하는 意味에서 이번 號를 特히 이렇게 編輯한 것이다.” 「編輯余墨」 『개벽』 신간 제2권 4호, 1935.3, 106면.

차상찬의 「朝鮮新聞發達史」는 「朝鮮言論界의 昔今觀」(『개벽』(제59호, 1925.5), 「新聞雜誌의 史的 考察」(『신인간』 제43호, 1930.1), 「朝鮮新聞雜誌發達史」(『별건곤』 제30호, 1930.7) 등 이전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朝鮮言論界의 昔今觀」은 1925년 전조선기자대회 때에 준비한 원고이며,⁶⁸⁾ 안재홍의 「朝鮮新聞史論」(1927)보다 앞서 신문의 역사를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선구적인 작업으로 평가받고 있다.⁶⁹⁾ 그는 신문의 기원을 新羅 神文王 시기 官府文札과 宣祖 十一年 朝報 등 「기별」紙에 두고, 漢城旬報부터 東亞, 朝鮮, 朝鮮中央의 민간지 시대까지 신문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처럼 신간호가 언론문제에 집중하는 이유는 언론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개벽사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천도교는 3.1운동 시기 제일 먼저 지하 신문 <조선독립신문>을 발간하고, 1만부를 인쇄해 3월1일 만세 운동과 함께 파고다 공원으로 가져가 군중에게 배포하였고, 이후 국내외 독립운동 소식을 계속하여 전하는 등 언론기관 역할을 담당하였다.⁷⁰⁾ 3.1운동 이후 이돈화, 박달성, 이두성 외 모모 인사들은 신문화운동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언론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개벽사 창립을 발의하였다.⁷¹⁾ 처음에는 신문 발행을 계획하였으나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월간 잡지를 발간하기로 결정하고, 『개벽』을 창간한 것이다. 이후 개벽사는 동아일보사, 조선일보사와 함께 언론집회압박탄핵대회(1924), 전조선기자대회(1925) 등 언론 자유를 위한 투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언론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유지하여 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차상찬은 <조선일보> 기자로부터 출발하였다. 최초의 기자단체인 無名會에 가입하고, 언론집회압박탄핵대회에서 실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⁷²⁾ 전조

67) 최민지, 김민주, 『일제하 민족언론사론』, 일월서각, 1978, 162~169면.

68) 『개벽』(제59호, 1925.5)의 목차에 「내가 본 朝鮮記者大會」·「朝鮮言論界의 昔今觀」·「開會前 禁止된 民衆運動者大會」가 묶여져 있고 필자는 一記者이다. 그런데 『어린이』 3(5), 1925.5와 『신여성』 3(5), 1925.5의 광고에 「朝鮮言論界의 昔今觀」의 필자는 각각 車靑靑, 靑靑으로 나와 있다.

69) 야나가와 요스케, 「1920~1930년대 언론계와 차상찬의 위치-단체활동과 '신문 발달사' 서술을 중심으로」, 김태웅 외, 앞의 2020 책, 280면.

70) 박용규, 「3.1운동기 항일지하신문의 친일파 비판」, 『언론정보연구』 56,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2019, 249~250면.

71) 「개벽사약사」, 『별건곤』 30, 1930.7, 8면.

72) <조선일보> 1924.6.30. 3면.

선기자대회의 준비위원과 서무부위원으로 기자대회 개최를 준비하였으며,⁷³⁾ 서기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⁷⁴⁾ 전조선기자대회는 조선어 신문사와 잡지사에 근무하는 수 백 명의 기자와 직원들이 참석하여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한 식민지 시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집회였다.⁷⁵⁾ 차상찬은 『朝鮮記者大會雜觀』을 통해 4월 15일부터 3일간 열린 기자대회 과정을 상세히 보고하기도 하였다.⁷⁶⁾ 또한 개벽사 대표로서 경무국 도서관을 방문하여 잡지언론의 자유를 강력히 요구하는⁷⁷⁾ 등 일제의 언론 탄압에 지속적으로 저항하였다.

언론 담론을 생성하고 언론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던 의지도 제2권 4호를 끝으로 『개벽』 속간호가 더 이상 발행되지 못하면서 중단되고 만다. 종간호 서두에 ‘開闢 社友制 大擴張’을 촉구하고, ‘이번 號를 新聞 批判號로 내는 關係 上 卷頭 主要論文과 中間讀物의 大部分을 죄다 다음 號로 미루게 되었다.’⁷⁸⁾라는 공지를 보면, 『개벽』 속간호 폐간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개벽』 강제 폐간 이후, 개벽사는 『별건곤』, 『혜성』, 『제일선』, 『개벽』 신간호를 창간하고 속간하면서 『개벽』의 정신과 위상을 회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나, 매번 급작스럽게 종간되고 말았다.

73) 〈동아일보〉〈조선일보〉 1925.3.17. 2면.

74) 「朝鮮記者大會 會員 名簿」(1925.6), 19~25면.

75) 임경석, 「일제강점기 조선인 기자와 언론활동: 1925년 전조선기자대회 연구」, 『史林』 44, 수선사학회 2013, 27면.

76) 一參觀者, 『朝鮮記者大會雜觀』, 『개벽』 59, 1925.5, 60~61면.

77) 「言論取締의 緩和를 雜誌業者가 眞情 -범규개정문제와 당면문제로 警務局圖書課訪問」 一. 法規改正 (가) 檢閲制度를 撤廢하라 (나) 新聞紙法の 範圍를 擴張하라 二. 當面問題 (가) 制外의 規定을 撤廢하라 (나) 不許可制及全文削除를 廢止하라 (다) 人物評을 許하라 (라) 檢閲時日의 迅速을 圖하라 編輯技術上干涉을 廢하라. 〈매일신보〉 1931.3.12, 2면.

78) 「編輯余墨」 『개벽』 신간 제 4호, 1935.3, 106면.

Ⅲ. 결론

개벽사 편집진은 『개벽』 창간부터 『개벽』 속간에 이르기까지 일제강점기 급변하는 내외의 변화에 대응하여 시대정신과 지성을 기획하고 언어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다양한 특집을 기획하여 사회문제를 공론화하고 여론을 형성하면서 식민지 매체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개벽』의 ‘기본조사’는 식민지 조선의 실상을 밝히고, 민족담론을 통하여 문화운동의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별건곤』은 대중잡지의 정체성 안에서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특집을 기획하고, 르포, 좌담회, 인터뷰, 대화체 등 다양한 기술방식을 수용함으로써 독자와의 소통을 확장시켰다. 『혜성』은 사회적인 문제와 세계정세에 대한 기획을 통하여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개벽』 속간호는 언론 특집을 기획하여 1920년대 개벽사가 지녔던 언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차상찬은 편집 겸 발행인으로서 이를 주도하였다. 그는 총독부의 혹독한 검열과 거둬드는 천도교 신구파의 갈등 속에서 끝까지 개벽사를 지키며 계속하여 잡지를 발간해냈다. 『개벽』 창간에 참여하고, 『개벽』이 폐간당한 후, 『별건곤』 창간에 참여하여 1926년 11월에 창간호를 내고, 1928년 7월(14호)부터 1934년 8월 중간호(74호)까지 편집 겸 발행인을 맡았다. 이 보다 앞서 개벽사 편집진들은 『朝鮮農民』(1925.12)과 『新人間』(1926.4)을 창간하였다. 『조선농민』은 개벽사가 아닌 조선농민사에서 발간하였지만 천도교 청년당의 발의로 출발하였고, 김기전이 창간을 주도하였다. 천도교 기관지인 『신인간』(1926.4)은 신인간사에서 발간하였지만 박달성이 창간을 주도하고 개벽사 편집진들이 관여하고 있었다.⁷⁹⁾ 이에 따라 개벽사는 차상찬과 방정환이 맡고 있었다. 『어린이』와 『신여성』의 편집 겸 발행인이었던 방정환이 1931년 7월 23일 사망하자, 차상찬이 1931년 9월(39호)부터 1934년 6월 중간호(71호)까지 『신여성』의 편집 겸 발행인을 맡았다. 1931년 3월에 편집 겸 발행인으로 『혜성』을 창간하여 1932년 4월(13호)까지 발행하고, 1932년 5월에 「제일선」으로 개제하여 1933년 3월(10호)까지 발행하였다. 또한 1932년 5월 창간한 「신경제」의

79) 『조선농민』과 『개벽』은 편집 겸 발행인(이돈화), 인쇄인(민영순)이 같고, 발행처인 조선농민사는 개벽사와 같은 경운동 88번지였다. 『신인간』의 편집 겸 발행인은 이돈화이고, 천도교청년당이 주관하였고, 발행처인 신인간사도 개벽사와 같은 경운동 88번지였다.

발행인도 차상찬이었고, 1934년 11월 『개벽』을 속간하여 『개벽』 신간1호를 내고 1935년 5월 신간 4호까지 발행하였다. 차상찬은 김기전, 박달성과는 달리 천도교 청년당 조직과 활동에 깊숙이 개입하기보다는 개벽사 잡지 발간에 주력하였다.

하지만 개벽사는 내외의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만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논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잡지 시장의 재편, 세계 불황, 인쇄비 인상, 검열 등 외적인 요인이 자리하고 있지만, 개벽사 내부의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천도교 내부가 분열과 갈등, 변절을 거듭하면서 민중과 독자의 신뢰를 잃었고, 함께 가시밭길을 걷던 동료들 중에 민영순, 이두성, 박달성, 방정환 등이 사망하였고, 김기전은 오랫동안 요양 중에 있었다. 개벽사 주요 편집진 중에 이돈화와 차상찬만이 남아 있었는데, 이돈화는 사상가이며 논객으로 잡지 발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차상찬이 개벽사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개벽’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였으나, 혼자 개벽사를 재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글은 『개벽』 『별건곤』 『혜성』 『제일선』 『개벽』 신간호 등 개벽사 잡지의 기획물이 개벽사의 방향성과 매체의 변화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차상찬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하지만 개별 잡지 기획물의 내용과 맥락, 기획자로서 차상찬의 위상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충분히 개진되지 못한 점이 있다. 미흡한 부분은 다음의 논고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開闢』, 『別乾坤』, 『彗星』, 『第一線』, 『開闢』 新刊號, 『朝鮮記者大會會員名簿』(1925.6), 『善成
校友會報』 第一號(1921.7)
- 김태웅 외, 『차상찬연구』,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20
- 임경석. 차혜영 외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09
- 조기간, 『天道敎靑年黨小史』 天道敎靑年黨本部, 1935
- 차상찬전집편찬위원회 편, 『차상찬전집』 1.2.3, 금강 P&B, 2018
- 최덕교 편, 『한국잡지백년』 2, 현암사, 2005
- 최민지, 김민주, 『일제하 민족언론사론』, 일월서각, 1978
- 홍이표 역, 후카이 토모아키, 『사상으로서의 편집자』, 도서출판 한울, 2015
- 강용훈, 「1930년대 개벽사 발간 잡지의 문예담론과 식민지 조선의 매체 지형」, 『비교문화연구』
51,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2018
- 박용규, 「3.1운동기 항일지하신문의 친일과 비판」, 『언론정보연구』 56, 서울대 언론정보연구
소, 2019
- 박찬승,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3-언론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
운동사연구소, 2009
- 심경호, 「차상찬의 인문지리지 및 세태보고서 작성」, 『『개벽』 창간 100주년 기념 2020 ‘차상
찬학술대회』, 2020.11.6
- 이경돈, 「『별건곤』과 근대 취미독물」, 『대동문화연구』 4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4
- _____, 「취미라는 사적 취향과 문화주체 대중」, 『대동문화연구』 5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
원, 2007
- 이선경, 「『별건곤』의 편집체제연구-공론장과 여론 구성 전략을 중심으로」, 『동양학』 77, 단국
대 동양학연구원, 2019
- 임경석, 「일제강점기 조선인 기자와 언론활동; 1925년 전조선기자대회 연구」, 『史林』 44, 수
선사학회, 2013
- 정용서, 「1930년대 개벽사 발간 잡지의 편집자들」, 『역사와 실학』 57, 역사실학회, 2015
- 정현숙, 「차상찬의 이동과 연대의 시간-『개벽』의 ‘조선문화의 기본조사’를 중심으로」, 『구보학
보』 24, 구보학회, 2020
- 최수일, 「신간회 결성에 끼친 『개벽』의 영향」, 『개벽의 백년 백년의 개벽 발표집』, 『개벽』 창
간백주년 기념 공동기획 학술대회, 2020.10.5,
- 허 수, 「1920년대 『개벽』의 정치사상-‘범인간적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1(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Gaebyeoksa and Cha Sang-chan — focused on Gaebyeoksa magazine project and tectonic shifts in the media

Jung, Hyun-sook

'Gaebyeoksa' magazine planned various specialities, which revealed their identity and responded to colonial reality. This paper discusses the changes in the project of 'Gaebyeoksa' magazine, focusing on Cha Sang-chan. He is the editor, publisher, author, and the leader in the publication of the magazine. The subjects to discuss are 'Gaebyeok', 'Byeolgeongon', 'Hyesung', 'Jeilsun', and 'Gaebyeok' periodicals.

The representative special project of 'Gaebyeok' is 'Basic Survey of Chosun Culture'. The project focused on informing the reality of colonial Chosun and emphasized the national consciousness of the discourse of cultural nationalism. 'Byeolgeongon' planned various projects on the theme of history and culture within the identity of popular magazines, and especially accepted various technological methods such as reportage, chat, interview, and dialogue. 'Hyesung' planned a special feature on social issues and world affairs, while 'Jeilsun' planned it on literature and culture. Lastly, 'Gaebyeok' periodicals sought to restore its status as a media organization held by 'Gaebyeoksa' in the 1920s through a feature on the media community.

Key Words : 'Gaebyeoksa', Cha Sang-chan, special project, 'Gaebyeok', 'Byeolgeongon', 'Hyesung', 'Jeilsun', 'Gaebyeok' periodicals

